

부산지역 무대예술전문인 현황과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에 의한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

Performing Work Subject to the Busan Area Theatre Arts professionals Activation Plan

장준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Jun-Kyu Jang(busan3101@hanmail.net)

요약

국민 문화 향수권 보장을 목적으로 국·공립문화회관이 전국에 건립되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등으로 공연예술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시설건립 치중에 비해 작품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인에 의한 공연장 시설지원과 운영, 공연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무대예술전문인으로 양성된 이들은 수요와 공연작품 제작 참여 기회를 상실 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관람 충족에 따른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시·구·군의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공연작품 제작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며, 시스템의 정착을 전제로 부산지역의 6개 공연장을 운영사례로 살펴보고,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무대예술전문인 | 공연작품제작 시스템 |

Abstract

Because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promise the cultural homesickness of citizens, national and public culture centers are under construction all over the country. The interest of watching plays are increasing. But the existing culture center's facilities operating in the construction of emphasized. It's made up of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are having a hard time breaking their limits. In consequence, to solve these problems it will be done with people who have qualifications of stage art professional in the center. Productions raise a support system of the city and venues subject to theatre arts professionals as a way of solving these problems. These are the efficient ways to develop performance cultures of issues presented and the Busan area performing arts Activation Plan is proposed.

■ keyword : | Cert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 Concert Productions Systems |

1. 서론

지식사회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반영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공연 작품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욕구충족목적에 따른 공연들이 제작되어지고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수준 높은 전문연주자들에 의한

접수번호 : #121107-003

접수일자 : 2012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2월 05일

교신저자 : 장준규, e-mail : busan3101@hanmail.net

저렴한 공연관람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육구 증진을 해소하고, 공연관련 법제정으로 세분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작품을 제작, 보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각 공연장별 자체 무대예술 전문 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예술의 자유, 보호·발전, 국민 문화향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보호법 제정으로(1949. 5. 21), 공연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공연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보다 더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법으로 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1999년 2월 8일 공연법을 전면 개정, 공연예술 활성화 일환으로 공연예술육성 제도를 마련,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이다[1].

무대예술전문인제도는 2005년 전국 각 공연장 객석 수 대비 무대예술전문 인력 의무배치 방침에 의거, 전국 각 시·도의 무대 관련 기술·기능직 공무원들이 대거 국가자격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란 걸림돌에 의해 수년간 개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노하우들을 일순간 잃어버리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최소 인력을 심사보류와 필수요원 등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격 보유 차원의 명목상 인력 유지로 인해 이들 스스로 업무상에서의 위치와 발령 등의 문제로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 되고 있다.

이들에게서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거의 매일 진행되는 다스피 하는 공연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예술성에 대한 공연주체와의 지적 갈등,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비연계성과 전문보충인력 불가 등의 원인으로 공연작품 제작 뿐 아니라 진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해, 현재까지도 이들 뿐 아니라 공연작품제작을 주도하는 연출가나 안무자, 대관 기획사들 사이에 반감이 적지 않다.

당시에는 전국 대부분 기관소속의 공연장들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특히 연출가와 안무자에 의한 일방적 공연작품제작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기능인 이상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없었고 기술을 우선시 하는 무대예술 전문인제도와 예술작품을 추구하는 공연작품 제작 주체간의 문제는 공연예술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연문화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전국 공연장들이 행사위주인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연의 대부분이 기관의 행사와 음악회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무대장치나 조명, 음향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불이 켜져 있고, 소리만 잘 들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시립예술단체 공연 뿐 아니라 대관 공연주최자들(뮤지컬, 무용, 연극 등)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공연에 필요한 장치들을 주관사에서 자체 제작해 사용하거나 렌탈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 시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나타났다.

공연작품 또한 문화회관이나 시립예술단체들의 일방적 작품 제작과 보급에 의해 관람객의 입장에서 선택적 관람이나 취향이 무시되어 왔다. 또한 공연예술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기에 국민의 지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간적 여유 등으로 인한 공연예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공연작품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요구에 의해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적 성격의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다양한 능력배양, 처우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 일환의 공연작품제작에 있어 비현실적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여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지원과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에 따른 창의적 공연작품 생산을 통해 상호 원활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공연문화 활성화방안을 제시 한다.

선행연구에서의 무대예술전문인제도 현황과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들, 전국 각 문화회관의 공연작품 제작 현황을 집중 분석하여 국립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의 운영 체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공연예술의 개념과 정책, 무대예술전문인제도 현황과 전국 주요극장의 공연 실태 분석, 부산 지역의 공연작품 제작 및 무대예술전문인 현황을 분석하여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공연작품 제작지

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정착을 전제로 부산지역의 6개 공연장을 운영사례로 살펴보고,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현황

1. 공연예술의 의의와 문제점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그 예술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집단예술에 속하며,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보다도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공연예술은 1회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 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비영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함양, 창의력 계발, 문화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었다[2].

그러나 공연장 건립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형태가 적지 않으며, 지역인구수와 예술인 대비 지역문화 진작 요건과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연장 효율성 측면과 공연작품 제작 등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체 실시로 더욱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활성화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은 문화가 지역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사회적 제가치의 형평 분배 문제'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구적 노력이 더해지면서이다.

2. 무대예술전문인의 기능과 자격검정제도 현황

좋은 공연은 무대기계(장치), 조명, 음향의 이 세 분야가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이루어 극적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이며, 완성도 높은 공연이라고 하면 이러한 요소들과 배우의 연기가 더해져 비로소 완성된 공연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무대조명 전문인(electrician)은 공연에 필요한 조명 설비를 설치하고 조작하는 사람으로 필요시 디자인까지 담당하며, 작품의 설계 작업을 포함, 공연 제작을 위해 빛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이다.

무대기계전문인(stage machinery engineer)은 외부에서 반입된 무대장치와 인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디자이너의 의도를 최대한 무대에 구현하는 것이 스테프로서의 임무이며, 조명기, 무대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대 시설을 운전하며, 공연시설의 전환, 무대기계, 기구 등을 담당하는 업무이다.

무대음향전문인(sound engineer)은 음향 장비를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로 무대음향 기기의 작동, 설치, 조정(오퍼레이팅), 보수와 녹음 및 편집 작업, 설계, 음향 큐시트(녹음과 확성) 작성과 음향 제작 실무로 정하고 있다[3].

3. 자격검정제도 도입 배경 및 합격 결정 기준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검정 제도 도입 배경은 무대예술분야 전문 인력 확충과 저변확대,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대 위의 출연진과 더불어 무대 뒤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무대스텝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9년 2월 「공연법」 개정시 무대기계, 조명, 음향 기사들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 하였다[4].

시행목적으로는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 강화, 무대예술 부문 지역 균형 발전 증진, 상호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기술향상,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 고취, 우수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로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 시킨다[5].

1999년 당해 2월 시행령 및 규칙개정안 확정, 11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에 관한 규칙(안)이 입안, 2002년 공연법령 개정, 종전 2002년의 객석 500석 이상에서 2005년 객석 500석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공연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6].

최근 개정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 기준 <개정 2011. 11. 25> 제10조의 4관련의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 합격에 자에 대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7].

표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기준

구분	응시기준
1급	1. 해당 분야 2급 자격 취득, 실무경력 3년 이상 2. 직무 분야 기사 자격 2급, 실무경력 2년 이상
2급	1. 해당 분야 3급 자격 취득, 실무경력 2년 이상 2. 직무 분야 산업기사 자격 3급, 실무경력 1년 이상
3급	1.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 2. 검정기관 인정, 실무경력 1년 이상 3. 직무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표 2. 실무경력 인정기준

구분	인정 대상 업무분야	실무경력 인정기준
무대 기계	1. 무대기계 조작·관리 2. 무대장치 설치·전환	1. 공연장 종사자: 근무기간 실무경력 인정 2. 공연업 종사자: 해당자 실무경력 1년 가. 검정기관 기준 해당 연간 5개 이상 작품 참여한 경우(공사 포) 나. 공연기간 연 90일 이상 공연작품 포함 연간 2 개 이상 공연업무 참여
무대 조명	설치·조작·관리	
무대 음향	설치·조작·관리	

아래의 [표 3]은 무대예술전문인 필기시험 및 실기과목 시험으로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하며,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검정의(제13조 제5항 관련)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8].

응시자격 요건은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공연장에서 1년만 근무하면 취득할 수 있다. 현재 기술·기능직 공무원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순환보직의 평균 근무 연수는 3년으로 공연장 근무를 통하여 공연업무진행 등 자격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일반인들과의 자격구비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법 개정은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여 공연문화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여겨지지만,

실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활동할 공연장은 그리 많지 않다.

표 3. 무대예술전문인 필기 시험과목

구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합격 기준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무대 기계	1급	20	8	무대기계 I, II, III	80	32
	2급	30	12	무대기계 I, II	70	28
	3급	40	16	무대기계 I	60	24
무대 조명	1급	20	8	무대조명 I, II, III	80	32
	2급	30	12	무대조명 I, II	70	28
	3급	40	16	무대조명 I	60	24
무대 음향	1급	20	8	무대음향 I, II, III	80	32
	2급	30	12	무대음향 I, II	70	28
	3급	40	16	무대음향 I	60	24

표 4. 무대예술전문인 실기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배점	합격 기준
무대 기계	무대기계 I, II, III	100	60
	무대기계 I, II	100	60
	무대기계 I	100	60
무대 조명	무대조명 I, II, III	100	60
	무대조명 I, II	100	60
	무대조명 I	100	60
무대 음향	무대음향 I, II, III	100	60
	무대음향 I, II	100	60
	무대음향 I	100	60

4.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기준 및 배출현황

아래의 [표 5]는 <개정 2011. 11. 25>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으로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의무 전면시행, 2004년 검정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이 지정되었고, 2005년에 500석 이상의 국립공립공연장 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이 시행되면서 이들 전문인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9].

무대예술전문인 배치기준으로는 각 분야별 기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공연장은 극히 드물고, 제도상의 문제는 공연 횟수를 감안하면 턱 없이 모자라는 인원이며, 최저 기준이기는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업무 여건과 환경, 극장의 시설이나 규모, 연간 공연작품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 인원 외 추가인원을 두지 않아 부산지역에서 만 문화회관 연평균 공연이 256회 이상으로 공연업무 대비 과중한 업무를 초래하고 있어 민간예술단체의 공연 기술지원 서비스는 이들 능력 밖

의 일로 간주되어 민원제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표 5.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기준

배치 대상 공연장	등급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객석 1천석 이상	1급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명	1명	1명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표 6. 2011년 무대예술전문인 배출현황

등급	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급	548	188	200	160
2급	717	227	283	207
3급	1,355	400	441	514
합계	2,620	815	924	881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전문인 자격 검정시험은 2000년도에서 현재까지 검정시험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무대예술전문인들이 국공립문화회관 및 사설 공연장에 공무원 혹은 계약직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무대예술전문인 배출현황은 시험 합격자 2,620명, 경력 인정자 1,047명으로 총 3,667명이 배출 되었으며, 2011년 [표 6]의 한 해만 총 2,620명이 배출 되어 정부의 문화지원정책이 시설건립에서 공연장 운영내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진다.

III. 국공립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1. 국립극장 및 아르코예술극장 현황

우리나라에서 공연작품 제작이 가능한 공연장은 국립극장으로 공연단체 뿐 아니라 무대예술전문인과 무대 미술팀 등 공연작품제작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의 질적, 양적 다양한 공연작품 생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공연작품 제작에 의한 완성도 높은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전국 각 지역 문화회관 운영의 롤 모델로서 분야별 공연관련 정책 지원과 공연 프로그램 지원, 특히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기술자문 제공 등과 교육의 장으로서 많은 부분 기능적 역할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 제도로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1호로 공포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반 행정기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마련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 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국립극장은 국민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문화 리더의 역할을 자처해 예술성, 공익성,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경영성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제4기를 맞은 국립극장은 제1기(2000.1.)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경쟁원칙 도입, 제2기(2003.1.) 제도약을 위한 기반 여건조성, 제3기(2006.1.)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역할 확대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제4기(2009.1.)에는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브랜드 작품의 개발·육성, 공연예술 감상 및 교육·예술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대(對)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수혜자 중심의 경영으로 공공성과 국민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역점사업으로는 공익성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휴식 공간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목표로 4계절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월대보름 축제<남산 위의 둥근 달>, 여름 축제 <열대야 페스티벌>, 가을 축제<가을빛 은빛 신나라>, 겨울축제<희망의 노래> 외 <청소년 공연예술제>,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등을 통해 국민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토요 문화광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토요상설무대> 등 전통 위주의 다양한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

표 7. 국립극장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구분	인원
계	38
책임감독 및 무대감독	5
책임감독 및 무대기계실	5
책임감독 및 조명사무실	9
달오름 및 해오름조명실	2
책임음향감독 및 음향사무실	5
해오름 및 달오름 영상실	3

* 국립극장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2013.1.8
 * 무대미술팀 32명

문화소의층의 공연 관람 기회로 2001 국립극장 ‘객석 나누기’ 캠페인과 사회교육 실천으로 2007년 ‘국립극장 공연예술교육’ 등을 기획하여 성인 및 청소년들이 극장의 공연예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10].

최근 공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극장인 아르코예술극장의 한팩 공연장 또한 기존의 대학로 극장과 연계, 조직의 전문성으로 공연장 제공 및 공연시설운영 지원과 전문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연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며 공연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공연작품 제작 뿐 아니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의 기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공연예술 진흥과 공연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공간 확보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수 예술단체들에게 발표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시설 조성” 취지에 따라 1981년 4월 개관, 최근 20여 년간 공연 예술계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지만 공공성과 함께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 힘겨워 하는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지지 임무를 분명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해 가는 극장이다 [11].

표 8. 한팩 조직 및 기구[12]

경영총괄부	국회, 계약,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임원실	의전, 비서
공연기획부	총괄, 무용PD, 홈페이지, 연극PD, 무용PD, 대관 홈페이지, 홍보, 티켓 마케팅, 하우스매니저
공연지원부	무대8, 조명8, 음향6
문화사업부	총괄, 축제, 공연예술교육 공간운영, 서울국제공연예술제 3관(대관, 조명, 음향)

2. 전국 주요 공연장별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대부분의 공연장 운영은 각 공연장의 활용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 중, 소극장과 회의장 등 평균 4곳의 업무진행을 기본으로 하여 한 공연장 규정상 최소 인원으로 각 분야별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광역시별 주요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지역	공연일수	계	구분	인원
세종문화회관	343	27	무대기계	14
			무대조명	7
			무대음향	6
부산문화회관	569	11	무대기계	4
			무대조명	3
			무대음향	4
인천종합예술회관	375	14	무대기계	6
			무대조명	5
			무대음향	3
광주문화예술회관	362	11	무대기계	3
			무대조명	4
			무대음향	4
대전문화 예술의 전당	207	16	무대기계	4
			무대조명	4
			무대음향	4
대구문화회관	155	9	무대기계	4
			무대조명	3
			무대음향	2
울산문화회관	534	13	무대기계	5
			무대조명	3
			무대음향	5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말 문예회관 운영현황
 * 각 공연장별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2013.1.8

위 표는 광역시별 주요 공연장 보조 업무를 제외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 보유자 현황이며, 공연일수는 대관을 포함한 공연일수이다.

연간 무대예술전문인 1인의 공연근무일수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공연일수 569일 무대예술전문인 수 11명, 1인당 근무 일수는 51.7일, 다음이 울산 534일 13명으로 41.1일, 광주 362일 11명, 32.9일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일수 대비 무대예술전문인이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공연 207일 무대예술전문인 16명으로 1인 연 평균 근무일수가 12.9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구 대비로 보아도 전체적으로 지방이 서울 보다 공연일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반해 전문인의 숫자가 적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공연장 가동의 효율적 측면으로 볼 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일 수 있으나 공연

장 운영 측면에서의 극장 가치와 공연작품의 수준에 있어서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대관 공연은 개인 독주회와 지역 음악인들이 공연장을 차지하고 있어 정작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종합예술인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의 시립예술단 및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작품 제작 및 공연진행에 있어서 일정상 무대예술전문인들의 참여도 불가능하지만 짧은 대관일로 인해 공연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며 성수기인 5월, 6월, 7월, 9~12월에는 대관조차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공연 대관신청은 연중 2회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대관을 결정한다. 공연주최자는 대관비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짧은 일정으로 공연을 진행하는데, 보통 7일에서 2일 음악회의 경우 많은 시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 당일에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연장별 대관 신청을 하다 보니 공연장 일정의 중복으로 인원, 시간, 조건에 의해 공연작품 제작에 투입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공연 중심이 아닌 공연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의 무채용 기준 및 기타 기준들은 공연장 기준으로 되어 있어,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기존 극장에 적용이 어렵다. 또한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이 많은 관계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대형 체육관 공연, 야외무대 공연의 경우는 규정의 밖에 존재해 법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13].

3. 부산지역 공연장별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각 시·구문화회관의 무대예술전문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부산지역 무대예술전문인 현황

구분	계	무대		조명		음향	
		7	8	8	7		
총계	23						
	7	1급	2	1급	2	1급	3
	6	2급	1	2급	3	2급	2
	10	3급	5	3급	3	3급	2
부산문화회관	11	1급	1	1급	1	1급	2
		2급	1	2급	1	2급	1
		3급	2	3급	1	3급	1
동래문화회관	3	1급		1급		1급	
		2급		2급	1	2급	
		3급	1	3급		3급	1

금정문화회관	3	1급	1	1급	1	1급	1
		2급		2급		2급	
		3급		3급		3급	
해운대문화회관	2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1
		3급		3급	1	3급	
영도문화회관	1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3급		3급	1	3급	
울속도문화회관	2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3급	2	3급		3급	

* 부산지역 각 문화회관 무대계

위 표에서 보면 부산지역 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은 총 23명으로 분야별로는 무대 8명, 조명 8명, 음향 7명의 무대예술전문인들과 기능직 공무원들을 보조로 각 지역의 공연예술을 담당하고 있다.

4. 시·구문화회관 무대예술전문인 운영 문제점

위의 [표 10]의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규정의 공연장 객석 천석이상 1급, 1명 이상, 800석 미만, 2급 1명 이상, 500석 미만 3급, 1명 이상의 배치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의 무대예술전문인은 기본에 해당하는 최소 인력으로 이들의 의미는 시설 자격 보유와 시설관리 측면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이들의 경력은 1988년 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라 부산시민회관에서 보직이동을 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개관과 함께 20년 이상 근무자 3명(1급), 10년 이상이 3명(2급)이었으나, 이중 20년 이상 근무자 중 1명(1급)은 5급 승진으로 일반부서로 전보되어 자격보유 인력들 외 3급 이하 보조 인력은 순환보직제도 적용에 따른 발령처 이동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인력 공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무대예술전문인으로서의 기능을 자연 상실하게 되어 공연제작 및 운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본업무 진행을 위해서 기존의 1~2급 자격보유자에 한해서는 필수요원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순환보직제에 대한 압박으로 부산광역시청의 인사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에 법적, 제도적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다.

동래문화회관 무대전문인 인력 현황은 대극장 524석,

소극장 202석으로 규정상 2급 이상이 3명이어야 하는데, 2급 1명과 이를 대신하는 3급 2명으로 업무보조 인력 없이 3명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공연 활성화 방안으로 계약직의 공연기획자를 채용 공연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공연장 전문인 부족 등의 운영상 문제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유지와 활용에 다각적인 연구 추진이 시급한 공연장이다. 공연작품제작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연작품 제작으로서의 기능은 불거한 반면 전반적인 시설 기반의 개선과 일정 부분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다면 타 지역에 비해 동태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상당수의 유·무형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산의 문화계적 가치가 높은 중요 지역 중 하나이다.

금정문화회관 무대인력 현황은 대극장 868석, 소극장 330석으로 무대예술전문 인력이 2급 이상 3명이 필요하지만 각 분야별 1급 3명과 업무보조 3명, 이들은 2개 조로 편성하여 각 1조 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격보유인원 3명 외 3명은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들로 자체적 무대업무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공연에 있어 매니지먼트를 통한 기획공연이 대부분이어서 외부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이들의 역할은 전문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공연업무 지원 서비스 차원의 인력보충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보류 중에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무대인력 현황에서는 중극장 495석, 소극장 110석으로 의무배치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전문인에 의한 시설운영으로 무대예술전문 인력 총 4명 중 자격취득자 2급 1명, 3급 1명의 전임계약직이며 이들 외 2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운대문화회관의 특징은 지역 내 예술단체 육성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 기관이며 공연장 연습실을 무상 임대하는 방식의 상주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상주단체로 인해 일부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있어 무대예술전문인의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공연장이다. 일부 구문화회관들 중에는 이러한 상주단체를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공연장 운영활성

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속도문화회관 무대인력 현황은 중극장 708석과 소극장 242석으로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기능직 공무원이 자격을 취득해 운영 되었으나, 2009년 이후 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순환 보직 이동된 후 배치 규정상 2급 이상의 자격 인력 3명이 운영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3급 1명만 상주하며, 기능직공무원 2명이 업무보조로서 공연장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연의 내용면에서는 유명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타 구문화회관에 비해 내용적 성과는 좋았으나, 부산시 내에서의 시·구 문화회관 중 시설, 환경, 지리적 여건 등 종합 평가에서는 다른 구문화회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도문화회관은 중극장 451석과 소극장 188석으로 무대예술전문 인력 의무배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전문인 3급 1명으로 전문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이 역시 보조업무는 기능직 공무원 3명과 함께 공연장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공연장 대부분은 무대운영 요건인 무대 기계, 조명, 음향분야에 보다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이들은 현재 드물고 위의 자료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순화보직에 의해 각 공연장에서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규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능직 공무원을 보조로 활용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공연작품 제작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휘, 안무, 연출가들이 예술성을 근거로 작품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예술적 관점에서의 능력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앞서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이들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며, 결국 무대예술전문인제도의 목적인 장비운영에 대한 기능적 측면과 의무배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체 자격 보유 인력으로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인 공연장 시설 서비스 지원조차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IV. 광역시도별 공연장 공연 운영 현황

1. 전국·광역시도별 장르별 공연 현황

표 11. 2011 최근 4년간 전국 장르별 공연건수 현황[14]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악	1,107	1,379	1,632	2,187
양악	5,181	6,380	6,654	7,417
무용	1,055	1,203	1,206	1,170
연극	2,347	2,568	2,706	3,480

최근 4년간 전국 장르별 공연 현황으로 공연작품 제작을 위주로 하는 무용과 연극은 각 전년 대비 감소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악과 양악은 연간 대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2011년 연극 공연의 창작극·번역극 분포[15]

구분	창작	번역	미분류	계
공연 건수	2,294	1,147	39	3,480
공연 횟수	44,547	20,576	219	65,342
횟수/건수 비율	19.4	17.9	5.6	18.8

장르별 전체 비율에서 창작극 2,294건으로 66.7%, 번역극은 1,147건으로 33.3%를 차지한다. 정확하게 창작극의 공연 건수가 번역극의 2배다. 전년도에 창작극이 1,587건으로 71%, 번역극이 945건으로 2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창작극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16].

이 중 창작 공연작품 제작이 가능한 연극, 무용, 또한 지속적인 상승추세이긴 하나 음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음악회 보다는 공연작품 제작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은 예산, 장비, 인력 등 몇 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반해 성공률도 장담할 수가 없어 특별한 작품이 아니면, 즉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 유명작품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예산 대비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회를 선호하고 있다.

공연관람 실적에서 만 보더라도 실제 교향악단 공연과 외국공연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국공립문화회관의 자체 제작공연에 대한 유료관람은 현격히 줄어든다. 무대예술전문인들이 기능적 한계에서 공연작품 운영진 반에 참여 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2. 부산광역시 각 공연장 운영 현황

아래 [표 13]은 부산광역시의 5개 문화회관 및 13곳의 공연장 시설현황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규정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곳이며, 500석~800석 미만의 공연장 4곳, 의무배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장이 8곳이며, 일부 공연장 중 설계 당시 500석 이상 규모이던 것이 인건비 및 예산절감 문제로 좌석수를 줄여 운영하고 있다.

표 13. 부산광역시·구 문화회관 현황[17]

시설명	개관	공연장	면적	무대면적	객석수	무대기계
부산 문화회관	1988	대	6,473	1,524	1,403	92
		중	2,718	323	774	33
		소	2,010	119	212	27
동래 문화회관	1999	대	874	330	524	31
		중	289	50	202	5
금정 문화회관	2000	대	4,806	553	868	47
		중	1,272	222	330	29
울속도 문화회관	2002	대	1,455	672	708	43
		중	429	147	242	10
해운대 문화회관	2007	대	1,070	329	495	32
		중	214	75	110	11
영도 문화회관	2009	대	447	363	451	33
		중	257	73	182	3

지역 구문화회관의 경우는 개관 이래 장비 교체나 시설에 대한 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연 작품제작 여건을 갖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은 공연장 건립추진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한 건립이 아니라 대부분 선거 공약의 정치적 목적과 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른 명분만 갖추었을 뿐이며, 공연문화 추진에 있어서의 지역 전체의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 그에 따른 문제를 안고 갈수밖에 없어 공연장의 목적인 지역민에 대한 공연예술 지원과 혜택에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부산광역시 각 공연장 공연 운영 현황

[표 14]는 2011년 부산광역시 시·구문화회관의 공연 운영 현황으로 공연장별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연중 509회 공연으로 대부분이 대관공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순

수 7개 예술단체 공연은 평균 80여일, 창작 관련한 공연 작품은 연중 연극 4건, 무용 2건으로 총 공연작품 제작 건수는 6건 정도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구문화회관은 여건상 민간예술단체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연장에서는 지역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정책과 지속적인 공연장 가동에 따른 저예산 고효율의 공연 작품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공연장소 무상 임대 조건의 입주단체를 통해 일정부분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어 그나마 무대예술전문인의 영향력이 다소 미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연예술작품 제작에서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14. 2011 부산광역시 시·구 문화회관 운영 현황[18]

시설명	총 직원수	무대 직원수	공연 일수	공연 유료관객	총 이용자수
부산문화회관	386	18	569	138,354	355,913
금정문화회관	21	3	381	98,511	129,991
동래문화회관	16	3	201	5,371	158,706
영도문화회관	14	5	135	16,757	40,553
울수도문화회관	19	3	253	22,328	168,828
해운대문화회관	13	4	438	49,912	110,538
총계	456	32	1,539	281,321	853,991

V.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제로 한 공연작품 제작 활성화방안

1. 부산지역 공연장의 공연작품 제작 문제점

지식중심 경제사회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문화적 힘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의 근간이 되는 영역으로서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 등은 문화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9].

앞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각 시·도의 문화회관 공연작품 수 관련 통계치는 기획사들의 늘어난 대관 공연일수와, 지역 단체나 독주회 등의 무료관람 공연에 의한 영향력이며, 공연작품제작에 의한 유료 공연관람객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이는 지적수준 향상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질적, 양적 불만요인으로 나타나 국내작품에 대한 신뢰성 감소로 유명 예술인 초청공연과 외국작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재들 또한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제도에 있어서 기능적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공연활성화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공연예술작품제작이 가능할 수 있는 예술성에 대한 교육지원과 환경 개선에 많은 부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의 타 지역 간의 비교에서도 부산광역시 각 공연장별 무대예술 전문인의 극장 대비 평균 3.8명으로 기존 공연장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공연장 운영이 공연 중심이 아닌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작품제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국립극장, 아르떼예술극장과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공연장 자체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조건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공연작품 제작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의 근무 환경이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공연과 함께해온 이들에게 예술분야 교육지원에 의한 참여를 조성 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지역내 각 공연장 시설개선과 일관성 있는 메뉴얼 제작으로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야 하고, 상호지원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각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들의 개인별, 분야별 능력 분석을 통하여 공연작품 제작 참여 가능성 여부 조사로 지원 분야별 무대예술전문인조직체계를 구성, 서비스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연예술작품 제작에 있어 지역의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동반 성장 기회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무대예술전문인을 통한 공연작품 제작 요건

이미 공연작품 제작의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각 시·도의 문화회관 공연장과 전문 인력을 활용 위해서 각 공연장 간의 업무협약체가 구성이 되어져야 하며 이후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무대예술전문인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연작품이 제작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연작품 제작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기본 업무연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그림 1]을 통하여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 마련에 따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의 무대예술전문인들에 대한 상호정보교류와 능력 평준화를 추구하여 공연작품 제작에 있어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 배양과 예술성에 근거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연작품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각 예술 협의체의 예술인들에 대한 장르별

분야별 제도 강화로 문화 콘텐츠 개발에 따른 작가 양성과 공연에 필요한 배우, 무용수 등 공연작품에 투입 가능한 예술 인력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공연장 대관신청자의 공연 무대 관련 스텝의 동반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 대관 공연의 원활한 공연장 서비스 지원 유지를 위한 각 극장별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전문인을 통한 대관 공연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 조건별 운영 방안

앞서의 공연작품 제작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

적 충족 요건과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 마련에 따른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구 각 문화회관 공연작품 지원예산의 통합 운영으로 예산 분배의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별 예술지원금을 통합 공연작품 제작비로 활용 그간 예술인 간의 지원금을 둘러싼 지원금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 공연작품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온 공연장 대관을 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연장에 대한 질적 가치부여와 공연작품 생산에서의 원활한 지원체제를 갖추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무대예술전문인들에게는 전문인으로서의 권한 부여로 장르별,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의 기량과 능력 등 자질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팀 배정으로 예술적 감각에 의한 체계적 분석으로 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공연작품 제작의 형태는 시립예술단 및 민간예술단체, 개인, 또는 작품의 관람 주체인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의 문화제를 장르별, 분야별 적용하여 공연작품 제작으로 추진 되어져야하고, 각 지역 공연장 순회공연을 통하여 공연작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연작품의 레퍼토리를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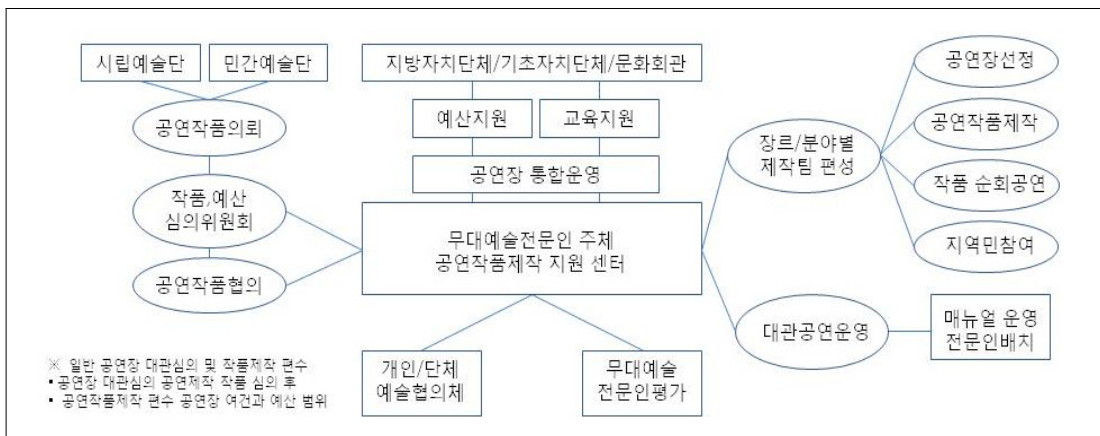


그림 1.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한 공연작품 제작 활성화 개선 방안

진하고 관람자로 부터는 평가와 동시에 작품 홍보를 추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유발을 통한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공연작품 제작 시스템의 부가가치 효과로는 공연작품 제작지원금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와 예술단체간의 예산 분배 불만 해소, 각 지역별 공연예술 경쟁력 강화로 예술 가치 상승과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브랜드 가치로서의 공연작품 생산의 가능성이다. 또한 지역의 공연제품 제작 업체의 참여와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로 상호 동반성장의 기회제공에 따른 공연작품 못지않은 새로운 형식의 기술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대예술전문인에 의한 공연작품 제작지원 시스템으로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공연예술 작품개발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을 보장해주고, 무대예술전문인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으로는 공연문화 활동 기반조성과 자긍심 고취, 국민적 화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지역 간 경쟁력 제고와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가 문화 브랜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VI. 결론

일부 국공립문화회관 뿐 아니라 각 시·도별 지역을 소재로 작품들이 생산되었지만 이미 다양한 공연작품과의 비교 우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수준적 격차로 인해 국민들로 부터의 관심과 참여유도에 실패했다. 지금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들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공공재를 활용한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으로서의 제작 기반이 형성되지 못해 전반적인 시각은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는 예산과 시설, 장비, 인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연장들이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고수하기 때문에 공연예술발전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결국 공연작품의 질적, 양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문화 욕구충족과 그에 따른 대

응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대예술전문인 현황과 지역 공연작품 제작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제도 개선에 의한 문제 해결이 방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이원화 된 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연작품제작의 주요 요건인 각 지역별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축으로 시설 및 인력에 의한 지원정책수립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공연예술 연구에 있어 각 영역별 문화정책과 제도,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심층적 연구가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작품 제작을 통한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연문화 활성화 정책이 실적에 근거하지 않는 순수 공연작품 제작으로 지역 공연문화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1] 국회사무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문화관광부, 공연법령집.
- [2]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제4장 예술정책, 제2절 공연예술정책, p.332, 2006.
- [3] http://www.staff.or.kr/introduce_committee/history.asp
- [4]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1.
- [5] 문화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p.563, 2002.
- [6] http://www.staff.or.kr/introduce_committee/history.asp
- [7] <http://www.ntok.go.kr/index.do>
- [8] <http://www.ntok.go.kr/index.do>
- [9] http://www.staff.or.kr/introduce_committee/history.asp
- [10] <http://www.ntok.go.kr/index.do>
- [11] <http://www.hanpac.co.kr/main/main.htm>
- [12] <http://www.hanpac.co.kr/main/main.htm>
- [13] 안경석, 구승환, 류준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

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2012.

-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1년 장르별 현황
-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1년 연극 현황 분석
- [16] <http://www.arko.or.kr/data/page2>
- [17] 2011년 등록공연장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18]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등록공연장 현황
- [19]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

[참조] 국립극장, 아르코예술극장 공연지원부,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무대계, 동래문화회관 공연시설팀, 부산금정문화회관 공연기획팀, 부산을속도문화회관 무대예술팀, 부산해운대문화회관 공연팀, 부산영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

저 자 소 개

장 준 규(Jun-Kyu Jang)

정회원



- 1992년 2월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전공(디자인 학사)
 - 2008년 2월 :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영상학 석사
 - 2011년 2월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근무
- <관심분야> : 공연정책, 공연기획, 홍보, 마케팅